

하람이에게

하람이 안녕 날씨도 많이 더운데 여름특강 하느라 힘들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끈기있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단다.

오죽하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는가 싶더라.

하지만 3일 밖에 지속되지 않는 각오라고 하더라도, 3일마다

새로 마음을 다잡으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난번 할아버지께서 한독이라는 회사를 그만두신 이야기까지

했었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후 할아버지께서

살이 순탄치 않았단다. 하람이도 학원을 옮기거나 전학을

가게되면 새로운 곳의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힘들잖아. 회사를

옮기는 것도 비슷하단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후 약 열세번

이직을 하시게 된단다.

처음에는 아마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아.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만 두셨던 90년대 초반은,

이미 전자공학이 유망한 분야라는 것이 이미 널리 퍼져서

대학에서 끊임없이 전자공학 출신자가 나오던 시기였어. 거기다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시다 그만두신 것이라

새로 입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급(級)이 맞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공장장까지 하셨던 이사급 자리는 정말 없었던단다.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어.

"이직을 생각했다면 상공부장관상이 아니라 대통령 상을 받아들걸"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상공부장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상을 받으신 분이란다. 해외에 많은

수출을 하신 공로로 말이야. 당시 대통령상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할아버지께서 필요 없다고 그냥 상공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거든. 취직도 잘 안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당시 아버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때 였는데, 가끔은 할아버지께서 몇 달 동안 집에 계셨던 것이 기억나. 회사가 이상해서 그만두신 적도 있고,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신 적도 있고, 또 기존 이사인의 텃새로 그만두신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 그렇게 수많은 회사를 옮겨 다니시다 인창전자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회사는 전자제품의 소켓이나 플러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할아버지께서 이 회사에 오래 계셨단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 회사의 사장은 자수성가(自手成家, 스스로 가문을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룬 사람)한 분이었던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상 남들이 자기에게 아첨만 하기를 바라지 바른말 하는 것을 싫어했단다. 거기다 성격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솔직하게 바른말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매번 괴롭혔던 것 같아. 하지만 괴롭히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의 능력이 임금에 비해 출중했기 때문이었고.

사실 할아버지께서도 급여도 짜고 사장은 이죽거리는 (이죽대다, 이기죽대다: 자꾸 밍살스럽게 지껄이며 짓궂게 빈정거리다) 회사에서 그만두고 싶으셨을 거야. 특히 급여가 형편없었던 거. 하지만... 딱 그 시점이 고모가 대학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고등학생이라 많은 돈이 필요하던 시기였단다. 아바 기억으로는 거의 10년을 죽은 사람마냥 꼭 참고 지내셨던 것 같아.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회사일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비슷한

나이가 되니 얼마나 힘들셨을지 이해가 되더군요.

이후, 아버지가 대학생때 IMF가 터졌고, 한국의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던 시절이 되었어. 그리고 이때  
사장이 할아버지를 중국에 보내려고 해서 결국 그만두셨단다.

정말 긴 기간을 참고 지내셨고, 힘든 시기였을거야.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인지는 몰라도 친구의 회사에 입사하신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계속 직장을 다니셨단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신 것도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라면 돌아가실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 그만두신 거니까.

이것이 할아버지 인생의 전부야. 당시의 남자들은 당연히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소임이었고 그걸 충실히 하신것이지.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셨기  
때문에 동기들이 모두 IMF때 직장을 잃고 집에만 있게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직장을 다니신 것이고.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술을 드시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한톨의 밀알" 이었던다. 땅에 심어진 한톨의 밀알처럼. 싹을  
틔운 밀알은 잎과 줄기를 키워 또다시 새로운 밀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는 이야기였어. 하람이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생각이 든단다.

무엇인가 교훈을 남기기 위해 할아버지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다. 그저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랬어. 사람 하나 하나는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있지만  
열심히 살아온 행적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슬픈 일니까.

모두가 역사책에 이름이 남을만한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주는 것이 소중한 것 같아.

아무튼 할아버지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네. 역시 사람의 인생을 편지 한장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 하람이도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렴. 노래도 듣지 말고 동영상도 틀지 않고 책상위에 종이 한장과 연필을 올려놓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거란다. 주위 사람들은 이걸하면 좋고 저걸 사면 좋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나중에 이게 되고 싶고 저걸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이야기 어떤 곳에도 진짜 내 이야기는 없단다. 그저 남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내 모습만 있을 뿐이야. 결국 사람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 그래야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참고 견딜 수 있으니까.

이제 여름 방학도 절반이상 지난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렴.

2026. 08. 06.

사랑하는 아빠가.



morning glory